

安心잡기 ... ‘자강론’ 뜨고 ‘연대론’ 지고

국민의당 주말·휴일 광주, 전남·북 당권 레이스

호남 반감 의식 ‘비박계’와 정치공학적 연대 반대

국민의당은 1·15 전당대회를 앞두고 주말과 휴일 ‘정치적 뒷받침’인 호남에서 당권 레이스를 이어 갔다. 당원 중 호남 지역의 비율이 55%에 달한다는 점에서 당권 주자들은 광주·전라 지역을 사실상의 승부처로 인식하고, 호남을 중심으로 한 정권교체와 대선 승리를 강조하며 지지를 호소했다.

특히 새누리당 ‘비박계’ 신당과의 연대 등에 대한 호남지역 반감 탓인지, ‘연대론’은 가라 앉고, 당 내 대권 후보인 안철수를 강조하는 등 ‘자강론’이 급부상했다.

국민의당은 주말인 7일 오전 전북, 오후 전남과 광주를 잇따라 돌며 시·도당 개편 대회를 겸한 뜨거운 당권 경쟁을 펼쳤다.

황주홍 의원은 “현 정치와 낡은 정치를 종식해야 새 시대가 열린다”고 주장한 뒤 가수 조용필의 ‘그 겨울의 찻집’ 노래를 직접 부르며 ‘호남발 정권창출’을 강조했다.

유일한 비(非) 호남 후보인 김영환 후보는 “저와 아내가 광주 민주화운동 유공자”라고 소개하면서 “전국정당으로 갈 수 있는 불씨를 살려야 한다. 민주화의 성지이자 국민의당의 심장인 광주에서 바뀌어야 한다”고 지지를 호소했다.

영암 출신 문병호 후보는 “새 정치와 안철수는 사라지고, 현 정치와 특정한 일변소가 기승을 부려 당이 이 모양 이 꼴”이라며 “새 정치와 혁신 없이는 국민 지지를 다시 받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손금주 후보는 “당에 드리워진 짙은 먹

구름은 우리가 당을 지키지 못하고 안철수와 천정배를 지키지 못하고 감동을 주지 못해서다”라면서 “이곳 저곳 기웃거리지 않고 정치혁명을 해나가자”며 자강론, 독자 세력화를 강조했다.

이에 맞선 박지원 후보는 “김대중, 노무현을 당선시켜본 당 대표이자 총선 직후 공중분해될 위기의 당을 구하고 2만 당원을 18만으로 늘리고, 38석으로 120석이 넘는 새누리와 민주당을 좌지우지한 것도 박지원의 힘”이라며 경륜과 역활론을 앞세워 거듭 대세론을 강조했다.



지난 7일 오후 광주 서구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국민의당 대표 후보자연설회에서 경선 후보들이 손을 흔들며 기념촬영하고 있다. 왼쪽부터 문병호, 손금주, 황주홍, 김영환, 박지원 후보. /연합뉴스

당권 후보들은 이어 8일에는 광주에서 TV토론회를 하고 오타워 자강론을 내세웠다.

이날 광주MBC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문병호 후보는 “제 3지대론은 패배주의적 발상이고 될 수도 없고 돼서도 안 된다”며 “독자의 길로 가면 총선에서 승리했듯이 대선에서도 승리할 것이다”고 주장했다.

손금주 후보는 “제 3지대론 빅텐트론은 정치공학적인 연대로, 인위적 통합이나 연대는 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반면, 황주홍 후보는 “자강론이 연대론을 차단하는 해국정책 같은 느낌인데 유연할 필요는 있다”고 말했다. 김영환 후보는 “민주당이 정권교체를 하면 전박 패권으로 몰락한 정치가 천문으로 회귀하는 것이다”며 국

민의당 중심의 정권교체를 역설했다.

박지원 후보는 “국민의당으로 모여 경쟁하고 정권을 교체해야 한다”며 “안철수 전 대표가 제안한 대통령 결선투표제를 하면 각 당의 정치적 거리가 아니라 정치적 연합이나 연정으로 국민의당이 호남가치를 지킬 수 있다”고 밝혔다.

국민의당은 PK, 호남에 이어 8일 제주, 9일 충청, 10일 강원과 TK(대구·경북), 11일 수도권 등 11일까지 전국 시·도당 개편 대회와 당 대표 후보자 합동연설회를 진행한다. 당 대표를 비롯한 새 지도부는 13, 14일 자동응답시스템(ARS)을 통한 사전 투표에 이어 15일 킨텍스에서 열리는 전당 대회에서 선출될 예정이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전남도 서민배려 38개 사업 142억 투입

노인·아동·청소년 등 대상

정서함양, 건강·치매 예방

저소득층 쌀 구입 지원도

전남도는 올 한 해 사회 약자계층을 위해 38개 사업에 142억 원을 들여 정서함양, 건강·치매 예방 프로그램, 운동치료 등 수요자 맞춤형 사회서비스사업을 추진한다고 8일 밝혔다.

주요 프로그램은 노인의 경우 운동 힐링, 치매 예방, 만성질환 예방관리, 판소리 건강 100세 투입세, 장수활력 서비스 등이다.

아동·청소년은 정서 발달·심리 지원, 드림터치, 비전형성 지원, 아동 부적응 행동치료 및 예방 서비스 등이다.

장애인에는 장애인 맞춤형 건강 증진, 시각장애인 안마, 장애인보조기기 렌탈, 장애아동 기능 발달 방문 서비스 등이 다.

사회서비스는 매월 가까운 읍면동사무소에 신청이 가능하며, 사업별 기준에 맞는 대상자로 선정되면 12개월에서 최대 24개월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전남도는 또한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에게 지원하는 정부양곡을 대폭 할인 지원한다.

정부양곡 할인 지원사업은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의 생활 안정을 위해 그동안 50% 할인된 가격으로 양곡을 공급하고, 양곡 구입량도 4인 이상 가구의 월 구매량을 최대 40kg으로 제한 공급해왔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생계급여, 의료급여 수급자에 대한 1포(10kg·20kg)당 지원율을 50%에서 90%로 상향해 양곡 10kg단위 1포를 본인부담금 1400원에 구입할 수 있다. 5인 이상 가구에 대한 월 구매량 제한도 폐지해 가구원 수 1인당 매월 10kg씩을 구매할 수 있다.

10kg 포장단위는 1인만 연중 구매가 가능했던 것이 올해부터는 가구원 수에 상관없이 10kg단위 구매를 희망하는 모든 가구가 연중 구매할 수 있다.

저소득층의 정부양곡 구입은 매월 10일까지 해당 읍면동에 신청하면 신청한 수급자의 가구(거주지)로 택배회사가 직접 배달해준다.

/장필수기자 bungy@kwangju.co.kr

손학규 ‘세월호 1000일’ 진도 팽목항 방문

손학규 전 민주당 대표가 8일 세월호 참사 1000일을 맞아 진도 팽목항을 방문했다.

손 전 대표는 이날 오전 늦게 광주에 들러 지지자들을 만난 뒤 바로 팽목항으로 이동, 유가족을 위로하고 자원봉사자들을 격려했다. 그는 예전처럼 언론에 팽목항 방문을 알리지 않은 채 조용히 다녀온 것으로 알려졌다.

손 전 대표는 광주로 돌아와 시민사회 단체 관계자들을 만난 뒤 이날밤 늦게 상경했다.

제 3지대 정치세력화에 몰두하고 있는 손 전 대표에게 호남은 가장 중요한 정치

적 기반이라는 점에서 이번 호남 방문은 오는 22일 서울에서 열리는 국민주권 개혁회의 발대식을 염두에 둔 행보로 해석된다. 조기 대선 국면에서 본인이 구상한 ‘국민주권 개혁회의’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서는 호남의 지지가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손 전 대표는 국민주권 개혁회의의 보고대회를 전국에서 가장 이른 지난 달 22일 광주에서 개최하기도 했다.

손 전 대표의 한 측근은 “호남에서 개헌 요구가 다른 지역보다 높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며 “호남 조직을 모두 가동 중”이라고 전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혁신·화합 리더십으로 정권교체 초석”

권은희 국민의당 광주시당위원장

국민의당 광주시당위원장으로 선출된 권은희(광주 광산울) 의원은 8일 “국민의당이 수권 모습을 보이기 위해서는 혁신하는 모습과 민생에 답하는 정책으로 시민들과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얻어야 한다”고 당내 혁신을 강조했다.

그라면서 “새로운 대한민국, 국민이 승리하는 대한민국을 만들어 정권창출 중심 세력으로 국민의당이 우뚝 서야 한다”며 “그러기 위해서 광주와 호남에서 수권 가능성을 약속 받아야 하고, 개혁 혁신의 진정성 또한 인정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권 위원장은 이를 위해 ▲미래청사진 제시 ▲실천하는 광주시당 ▲정치한 정치인 등을 들었다.

권 위원장은 “당원과 함께해서, 사심 없이 정권교체만을 생각하는 시당위원장이 되겠다”면서 “당원들의 목소리를 경청하

며 ‘화합과 통합’의 리더십으로, 오로지 정권교체의 초석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광주시민들의 숙원사업인 5대 지역혁신사업 추진에 광주시당이 앞장서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자동차산업밸리 조성, 미래밸리 조성 통한 미래에너지산업 중심도시, 문화콘텐츠산업밸리 조성, 국립공원 무등산 정상 방공포대 조기 이전 추진, 광주 군공항 및 민간공항 이전을 적극 추진해 광주 경제의 제도와약의 계기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권 의원은 지난 7일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시당 당원대표자대회에 단독 입후보해 시당 위원장에 무투표 당선됐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호남정치 복원해 대선에서 꼭 승리”

정인화 국민의당 전남도당위원장

국민의당 전남도당 위원장으로 선출된 정인화(광양·곡성·구례) 의원은 8일 “정권교체와 호남 정치복원. 강력한 분권정당 완성”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정 의원은 우선 “정권교체라는 국민의 명령을 전남도에서부터 실현하기 위해 도당 위원장에 출마했고, 불의에 저항하고 오직 대한민국을 옹호 방향으로 이끌었던 위대한 전남도민의 힘을 바탕으로 올해 반드시 대선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저의 모든 것을 던지겠다”고 밝혔다.

그는 또 “전남 10개 선거구중 국민의당이 8개 선거구에서 승리하였지만, 전남지사가 더불어민주당 소속이라는 이유로 미묘한 흐름이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전남도와 협력하고, 더민주 전남도당과도 협력해 나가면서 호남의 자존심을 살리고 호남정치를 복원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아울러 “강력한 분권정당을 완성시키겠다”면서 “자치와 분권은 민주주의의 핵심이며, 우리 당이 나아가야 할 가장 정확한 방향”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실질적인 분권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중앙당으로부터 국가보조금 확대 지원을 통해 광역·기초의원 의정활동, 정책개발, 교육연수 등으로 활용하도록 하는 한편 지역위원회와 도당에 권한을 대폭 이양하고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공약했다.

정 의원은 지난 7일 보성 다량체육관에서 열린 당원대표자대회에서 3205표를 얻어 이용주(3080표)의원과 윤영일(2674표)의원을 제치고 전남도당위원장에 당선됐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하동 왕의녹차 참송어

- 미국으로 수출하는 하동 왕의녹차 참송어
- 하동 왕의녹차 참송어는 육질이 단단하여 씹힘성이 좋은 고급횟감입니다.
- 초밥용 횟감으로 최고인 하동 왕의녹차 참송어.
- 성인병 예방에 탁월한 효과 하동 왕의녹차 참송어.

하동 왕의녹차 참송어에는 기능성 성분이 EPA 및 DHA 등의 함량이 많아서 성인병 예방효과가 있습니다.

수산물 많이 먹는 에스키모인, 일본인은 무병 장수하는 국민으로 알려져 있으며, 생선 중에 많이 들어있는 EPA, DHA, 타우린 등의 기능 성분이 그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사람들이 최고의 생선횟감으로 치는 광어보다 참송어의 단백질 함량이 높을 뿐만 아니라, 가을철의 최고의 횟감인 전어와 지방 함량이 비슷합니다. 한편, 기능성 성분인 EPA 및 DHA는 전어의 1.5배, 도다리의 8배 높습니다. 따라서 하동 왕의녹차 참송어를 먹으면 성인병 예방효과로 인하여 무병장수할 수 있습니다.

하동왕의녹차 참송어 드시고 성인병예방과 백세건강하세요.~~

왕에게 전상하던 “하동 녹차”를 먹어 보면 참송어

하동군수산업협동조합 / 하동군어류양식업연합회 / 하동녹차참송어영어조합법인

● 구입·유통문의 | 055)883-9715